

관악산 斷想

金형 공직을 그만두고 관악산을 떠 나온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마중고교시절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을 때의 기분이라고 할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규율에서 풀려났을 때의 허탈하면서 모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논아직도 관악산기승의 주황색 건물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걸 보면, 관악산기승의 생활이 체 인생역정에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산 아래 두세 개 건물밖에 없던 시절부터 기억이 출발하니,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같이 젊은 시절의 애환을 나누던 동료 선배를 전화번호표에서 찾으려 면한 참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 더욱 그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요즘 지나가면서 보는 관악산이 예와 같이 질푸른 것을 보면 젊은 날 그곳에서의 열정이 다시 느껴져 흐뭇해지곤 합니다.

인생은 짧고 그중에서 사회생활 기간은 더욱 짧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젊던 그 시절,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서류 준비를 하고 감감한 저녁 시원하게 불어오던 관악산풍을 맞으며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후련하던 시절이 아련합니다.

金형 관악산에서 그리 멀리 떠 나온 건 아닌데, 옷을 벗고 나와 있으니 수백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리

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나라일을 하느라 애쓰고 있고, 또 지난날 애썼던 선배 동료들이 정말 열심히 그 능력도 결코 과소평가되어서 안된다는생각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각은히 일부 사회에서 말하는 공직자상은 다분히 편견에서 나온 편향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고 판단하기에, 아직 민간부문 생활은 일천하지만, 우리 공직자들만큼 일의 해결 방안을 찾고 체계화시키는 능력과 책임감 짜임새 있는 추진력을 갖춘 조직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사무실안의 비좁은 환경, 여름철 무더위 속이 가끔씩 중단되는 냉방, 그렇지만 나라 일 한다는 보람과 긍지 하나로 불편한 시설 속에서도 눈동자들만은 초롱초롱했고 말은 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료 간 서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가끔씩 나누는 퇴근길 소주잔속에 애환을 녹여 내곤 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인가 사무실의 현대화(?)가 되면서 칸막이로 구분되는 사무실文化로 바뀌면서 이 같은



심우정
FITI시험연구원 원장
02-3299-8117 /
wjshim@fiti.re.kr



분위기는상당히경직되어왔고, 칸막이에막혀서 그런지동료상하간에 감정이흐르는통로가아주 좁아져왔다고느낍니다. 퇴근후 동료상하간의사적인 모임은심하게말해서귀찮아하는일이 되는 듯한분위기가있어애기 꺼내기가쉽지않은일이 되어가는걸보면서, 정말금석지감이들곤했습니다.

우리공직자들도세월에따라변해가는사회흐름에 초연할수는물론없겠지요. 그렇다해도바람직하지않은세상흐름에적극물어서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같은부서에서힘든일이있을때, 내업무가아니지만같이남아서쓴 반찬에식은 저녁을같이먹어 주며마음으로라도응원해주던이젠머리털회곳회곳해진참전같이일하던동료들이그립습니다.

金형 세월앞에 장사가없다는말 실감합니다. 옛날그 시절엔일 무서운줄 모르고달려들었지요. 그 시절의정열과체력그리고패기가새삼그리워 집니다. 20대군대시절, 죽을자할지모르고동기생들과의지하며배만부르면그 어떤모진훈련도거칠게없다고몸을내던지던그 시절을되새기듯하던 시절이있었지요.

이젠감성보다는, 기능·확 떨어진머리지만, 이성적인판단이크게 작용하는시절을산다고나할까요. 그러나우리가젊음이넘치던시절에밤낮으로 쌓아왔던경험이큰 양식이되어아직도나라를위하는일에 조금이라도보탬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金형 무더운여름이지나면머지않아서늘한가을이오고또추운겨울, 봄이오겠지요. 人間도자연의 일부이니자연의순리에따르지않고는살 수 없겠지요. 나이덕은선배가물러나면후배들이또 물러받이나쁜것은버리고좋은것은더욱발전시켜키워나가겠지요.

젊음을바쳐 일하며지냈던관악산자락이금년 여름에도여전히푸르고, 저녁퇴근시간지나치는 차안에서관악산밑의 대낮같이밝힌 건물들을보면서, 그푸른녹음같은정열을간직한젊은후배들이 오늘도더위를무릅쓰고나라의 발전을위해 머리를짜내고, 잠깐더위를식히려자판기커피한잔 뽑아들고쓴 담배에불을붙이는모습을그려봅니다.

金형의견투를빌면서....

| 기술표준2007. 9

